

벨기에 대외원조 현황

유럽 국가의 개발원조는 원조가 시작된 그 동기에서 우리나라와 많이 다른 것이 분명한가 원조 제공의 방법이나 이념, 전략 등에서는 신생 원조 공여국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벨기에의 경우 직접적인 양자지원을 실시하는 나라는 18개국에 불과하며, 원조의 대부분을 중앙아프리카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으로의 개발협력에 80% 이상의 국민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 유럽국가들의 원조 행태 연구가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의 방향성을 확립하는데 많은 보탬이 될 것이다. 한편, 벨기에를 포함한 많은 유럽 국가들은 각 국가 개별적으로도 원조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지역연합체인 EU를 통해서도 개발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정리 : 정책연구실]

I. ODA 전략

1. ODA 전략

- DAC 및 EU의 회원국으로써, DAC 및 EU의 개발 정책에 부합
- 개발원조 정책의 유럽화: EU의 개발원조정책에 관한 the European Consensus on Development 이행
 - EU의 주 정책 중 하나인 굿거버넌스를 개발정책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 중
- MDGs 달성에 동참하며 Fragile State 우선 고려
- 2005년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 이행
 - 파리선언 이행의 걸림돌이 된 법조항 중 BTC가 프로젝트를 직접 집행해야 된다는 조항을 삭제, 현재는 수원국이 직접 프로젝트 집행 가능
- 몬테레이 협약에 의거 2010년까지 GNI대비 0.7% 목표 설정

※ 벨기에는 유럽연합이 2010년 GNI대비 0.51% 목표에 비해 앞서가고 있음. 다만 최근 벨기에의 ODA 증가는 부채탕감에 의한 것임을 감안 (2003년 ODA의 40%, 2005년도 ODA의 37%)하면 새로운 재원이 필요

2. ODA 집중화 및 확대

■ ODA의 집중화

- 1999년 국제협력법
 - 직접 양자 지원을 최대 25개 국가로 한정
 - 5개의 집중 지원 분야를 명시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함
 - 지원 다자기구를 20개로 한정
 - 아동권리에 관한 조항 국제협력법에 포함
- 2002년 국제협력법은 중점협력국을 25국에서 18개로 축소

■ ODA 규모의 확대

- 2003년 벨기에 정부부처 개편안인 Copernic Plan에 의해 종전의 국제협력부(DGIC)가 외무부 내로 편입, 개발협력사무국(DGDC)으로 확대변경
 - DGIC : Directorate Genera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 DGDC : Directorate General for Development Cooperation
- 2003년부터 개발협력 장관 임명

II. ODA 규모, 주요 수원국 및 지원현황

1. ODA규모

(단위: USD million, %)

연 도	지원규모 (GNI 대비)	양자원조비율
2003	1,850 (0.60%)	-
2004	1,460 (0.41%)	-
2005	1,963 (0.53%)	67%
2006	1,978 (0.50%)	69%

2. 상위 10대 수원국

순위	국가	금액 (USD million)
1	콩고민주공화국	192
2	나이지리아	170
3	이라크	124
4	카메룬	42
5	르완다	32
6	부룬디	28
7	남아공	21
8	세네갈	20
9	에콰도르	20
10	베트남	19

3. 수원국

■ 협력국가 : 총 18개국

- 알제리, 베냉, 볼리비아, 부룬디, 콩고민주공화국, 에콰도르, 말리, 모로코, 모잠비크, 니제르, 팔레스타인, 페루, 르완다, 세네갈, 남아프리카, 탄자니아, 우간다, 베트남

※ 18개 국가 중 10개국은 최빈개도국(LDCs)

■ 취약국가에의 지원: 분쟁예방과 사회통합 차원

- 에서 취약국가에 대한 지원을 우선시함
- 지난 5년간 중앙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지원은 약 60%를 차지

Ⅲ. 원조기관 및 운영체제

1. DGDC : Directorate General For Development Cooperation

- DGDC는 양자간 원조 정책 수립: 협력프로그램 준비 및 조정, 예산 및 통계 담당
- DGDC는 외무부에 속하며, 6개 부처 중 하나
- DGDC는 5개의 directorates와 4개의 support service 부서로 구성
- 직접 양자지원은 DGDC가 집행, 간접 양자지원은 NGOs, 대학 등 여타기관들이 시행
- DGDC는 ODA의 60% 집행, 재무부는 ODA의 10% 집행
- DGDC는 Belgian Technical Cooperation (BTC)에 원조프로그램 실행 위임

2. 2006년 DGDC예산 배분

2006 DGDC예산	
정부 개발협력	25%
NGOs	22%
다자개발 협력 파트너	40%
Belgian Survival Fund 및 인도지원프로젝트	13%

3. BTC (Belgian Technical Cooperation)

- DGDC에서 위임받은 벨기에 양자 개발원조 실행 기관(1998년 설립)
- 30개국에 200개 이상 프로그램 수행
- 총 420명 직원 중 160명이 브뤼셀, 260명은 24개의 해외사무소 근무
- 프로젝트 발굴, 실행 및 평가 단계에 있어 DGDC와 BTC의 권한 범위에 혼선 발생

Ⅳ. 원조의 언타이드 현황

- 벨기에는 언타이드와 관련 재경부와 갈등을 겪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언타이드를 실시
- 비용 효과성 제고가 언타이드 확대의 주요 논리
- 2003년 벨기에의 최빈국에 대한 원조중 99.1%가 언타이드

Ⅴ. 중점지원 분야

1. 중점지원 분야 5가지

- 기초보건, 교육훈련, 농업과 식량안전, 기초인프라, 분쟁예방과 사회통합
- Cross-cutting Issue : 성 평등, 환경, 사회경제분야

2. 분야별 지원현황

(2005년 양자간 ODA기준)

- 부채탕감에 대한 지원 비율이 높음
- 사회 인프라 중 교육 및 굿거버넌스에 대한 지원 비율이 가장 높음
- 기초교육 및 기초보건에 대한 비율은 저조

VI. 사업 형태

- 기술협력, 설비투자, 현금성 지원, 기타(식량 지원, 인도적지원, 부채탕감)
 - 기술협력은 교환프로젝트(전문가 파견, 봉사단 파견, 연수과정)와 지식 공유 프로젝트(연구 지원, 개도국 내 연수과정 설립 운영, 세미나 워크숍 개최 등)가 있음
 - 설비투자는 물자지원, 인프라 건축으로 나뉨
 - 현금성 지원은 예산지원, NGO지원, Micro-finance, 기타 식량지원, 인도적지원, 부채

탕감, 인식 확산 캠페인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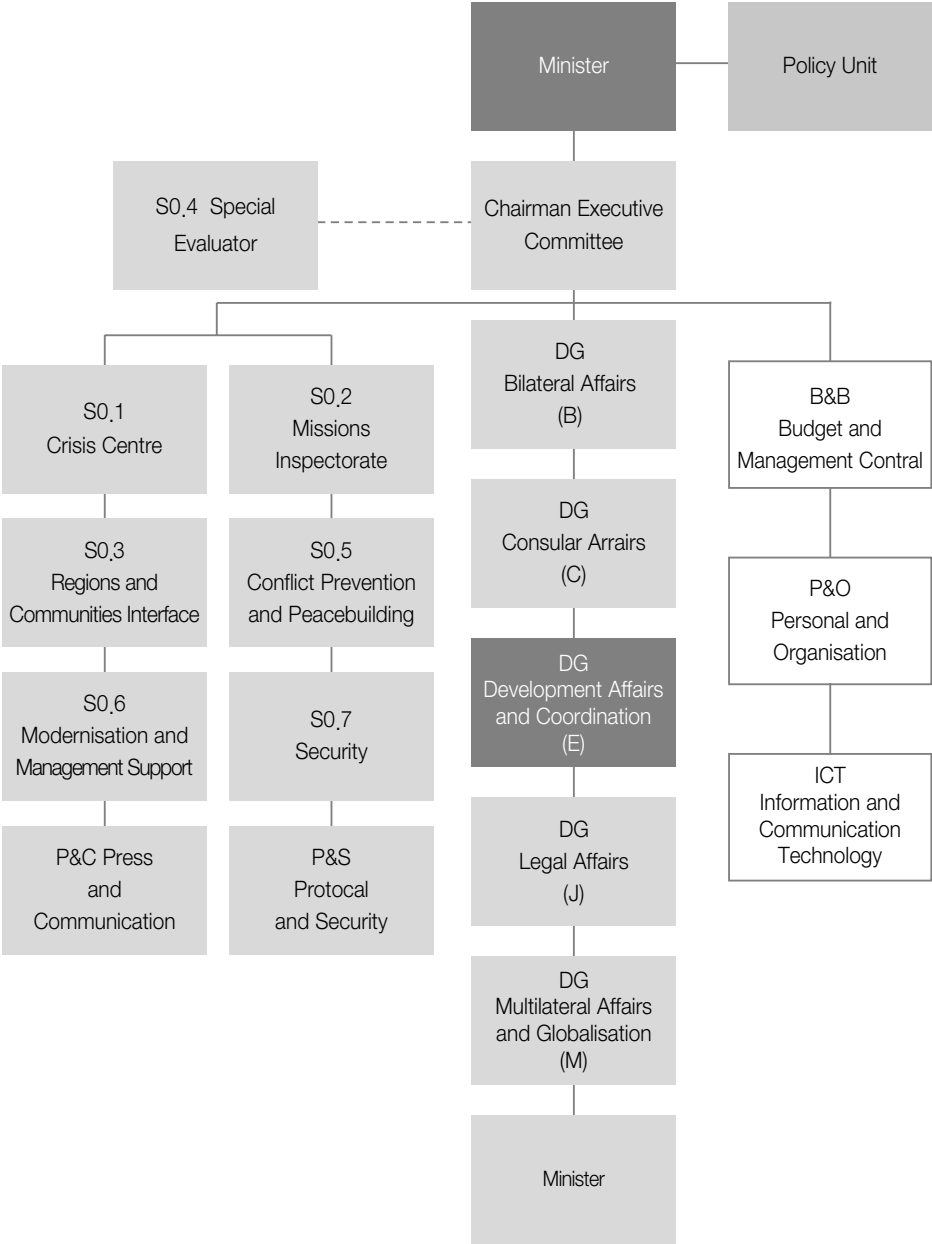
- 벨기에는 현재 7개 파트너 국가의 보건과 교육분야에 현금성 지원을 하고 있음

VII. ODA 홍보전략

- Eurobarometer에 따르면, 개도국에의 원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은 1998년 55%, 2002년에 71%, 2004년에 86%로 증가했으나 아직 유럽의 평균인 91%(2004)에는 못 미치는 실정임
- 개발원조에 관한 여론지지를 높이기 위해 관련 예산을 2000년도에 13.3 EUR million에서 2003년 18.1 million EUR 로 증대
- BTC는 개발원조에 대한 홍보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인데, Annoncer la couleur/Kleur bekennen 프로그램을 시행
 - 이는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개발에 관한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첨부 1 : 벨기에 외무부 조직도

Organization chart
The EPS Foreign Affairs, Foreign Trad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첨부 2 : DGDC 조직도

